

행자부 3년 연속 최우수 공기업 선정 광주도시공사 조용준 사장

경영혁신으로 수익증대... '나눔' 실천

광주도시공사가 광역단위 도시공사로서는 최초로 3년 연속 최우수 공기업에 선정됐다.

도시공사는 최근 행정자치부 주관 2015년 경영평가에서 가장 높은 '가 등급'을 획득, 내리 3년째 정상을 차지했다.

이 같은 성과의 바탕에는 광주도시공사 스스로의 개혁과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으며, 개혁의 중심에는 지난해 9월 취임해 내부 혁신을 주도한 조용준(67) 사장이 있다.

그의 취임 이후 광주도시공사는 생산적인 조직구조 개편을 이뤘고, 시민과 더불어 사는 나눔경영을 실천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역사회 발전을 모토로 초일류 공기업을 꿈꾸는 조용준 사장을 만나 3년 연속 최우수공기업 비결과 경영 철학,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 한때 위기였던 광주도시공사 경영이 크게 호전됐다.

▲ 한때 경영환경 패러다임의 변화와 기존 사업방식의 한계로 위기를 맞기도 했다. 매출 하락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관리운영사업의 비용 증가 등은 당기순이익 급감과 자금 유동성 경색을 초래했다.

- 재무상태가 좋아졌는데.

▲ 전 직원의 노력으로 매출액은 44.61% 증가했고, 영업수지비율은 126.69%에서 137.26%로 점차 상승했다.

2010년 도시공사는 부채비율이 256%로 부채 중점 관리기관 중 하나였다.



부채비율 200%이하 유지

당기순이익 443억 달성

임금피크제로 인건비 절감

청년실업 해소에 노력

년 말 196%로 낮춰 부채비율이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당시 도시공사의 사채 내역 대부분은 정부 시책사업 및 산단개발, 임대아파트 건축,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혁신도시조성 사채(2420억원), 평동산업단지 사채(1100억원), 진곡산업단지 용지보상채권(136억원), 도시재생사업(100억원) 등이었다.

▲ 성과중심의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강소조직'을 구성한 것이 주요했다. 3차례에 걸친 조직 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었다.

효과적인 조직으로 재편됐다.

또한 임금피크제와 명예퇴직제 시행으로 절감된 인건비를 신규 채용(2015년 13명)에 활용해 청년실업해소에 기여했다.

- 취임 1년이 가까워 온다. 공사를 어떤 공기업으로 만들어 갈 생각인가.

▲ 무엇보다 직원들이 만족하는 행복한 기업을 만드는 게 꿈이다. 내부 만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시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시민들과의 소통도 중요하다.

▲ 겨울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한편 영구임대주택 입주주민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에도 신경쓰고 있다. 도시공사는 혁신도시조성사업을 비롯한 진곡산단 조성사업 등 주요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행복주택·보금자리주택 등 주택사업과 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 첨단3지구 개발사업 등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사회통합형인 소규모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과 대학생 등 청년층 주거비용을 해결하는 사회임대형 재생사업, 그리고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해 구도심 활성화에 노력할 방침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조용준 사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도시재생 전문가. 조선대 건축공학과 교수를 33년간 역임하며 자신만의 이론을 쌓았고, 일본 도쿄대 도시공학과 연구원, 일본고토대학교 건축학과 초빙교수 등을 지내며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도시재생 사례를 연구했다.

▲조선대 건축공학과 교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 ▲한국 주거학회 회장 ▲광주 야구장 건립 시민추진 위원장 ▲대한민국 한옥박물관 추진 위원장 ▲대한민국 경관대상 심사위원장 ▲한국 농어촌 건축대전 심사위원장



문화전당 자원봉사자 발대식

1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전당 극장3에서 열렸다. 발대식에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이 교육을 받으며 활짝 웃고 있다. 봉사자 180여명은 향후 문화전당을 찾아오는 관광객 안내와 각종 행사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여수 정도 복합리조트 돼야 유커 유치 확산”

이낙연 지사, 김종덕 장관에 요청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입지 선정을 앞두고 이낙연 전남지사가 호남권에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12일 오전 서울 국립극단에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여수 경도를 호남권 최초 복합리조트 대상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제주 편중 현상을 시정하고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남해안의 흡인력을 키워야 한다”며 “지리적으로 남해안 중심에 위치한 여수에 관광허브를 구축해야 중국 관광객 특수를 남해안 동서 방향

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섬 전체를 복합리조트로 조성할 수 있는 경도가 선정되면 중국 유커를 겨냥한 고급 해양레저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결합된 관광상품도 판매할 수 있다”며 “외국 관광객 전국 확산으로 국가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34개 업체가 접수한 복합리조트사업 제안요청 심사 결과를 이달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시의회 이은방·조오섭 의원 ‘우수 의정대상’

광주시의회 이은방(북구 6)·조오섭(북구 2) 의원이 12일 전국 시·도의회 의정협의회가 주관하는 ‘제2회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 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들이 펼친 우수한 의정활동을 발굴·전파해 의정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1년 동안 주민 복지와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의원에게 수여된다.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이은방 의원은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학교 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조례’와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안하는 입법 활동과 함께 안전한 도시 광장을 위한 5분 발판 등을 통해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을 촉구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조오섭 의원은 근로자들의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



이은방 시의원 조오섭 시의원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생활임금 조례’ 등을 발의하고,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촉구 결의안, 2015 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제안 등 지역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앞장섰다.

두 의원은 “이번 수상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메르스 경영난 병·의원 전남도, 운영자금 지원

전남도는 메르스 사태로 시설 개보수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병·의원에 긴급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용자 규모는 총 4000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모든 의료기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해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줄어든 병·의원으로 한정하며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병·의원을 우선 지원한다. 대출 조건은 최대 5년 이내로(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금리는 연 2.47%(변동 금리)이며 담보 능력에 따라 병·의원 당 최고 20억원까지 가능하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 의료과장은 “이번 융자사업이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지역 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전남도(061-286-6041)나 보건복지부(044-202-2477)로 하면 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U-square restaurant featuring a menu with prices and a photo of the dining area.

Advertisement for M.H. Tasa (大山프리모) featuring portraits of staff, product images, and promotional text.